

국내·외 대학 뮤지컬과 무용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Domestic/Foreign College Musicals and Dance Curriculums

배혜령, 신종철
청운대학교 뮤지컬학과

Hye-Ryung Bae(bhr@chungwoon.ac.kr), Jong-Chul Shin(jcdance@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뮤지컬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교과과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4년제와 2~3년제 국내 대학의 뮤지컬관련학과와 국외로는 미국의 뮤지컬관련 학교 5개교, 프랑스 5개교를 선정하여 무용교육과정 수업실태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뮤지컬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뮤지컬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무용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화된 뮤지컬의 표현에 맞는 무용테크닉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특화된 뮤지컬무용교과 교수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장과 연계된 효율적인 교육방안이 필요하다. 뮤지컬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연기, 노래, 무용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들 중 한 분야를 습득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한국스타일의 뮤지컬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 중심어 : | 뮤지컬 | 무용교육 | 뮤지컬교육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oblems and complementation of Korean curriculum by comparatively analyzing curriculums of domestic/foreign musical-related departments. In order to compare differences in domestic/foreign curriculums, selecting musical-related departments of domestic colleges with four-year course and 2 or 3-year course, and also five musical-related schools in the US and another five schools in France, the actual lesson status of dance curriculum was researched. In the resul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al, it would be necessary to reorganize its curriculum. First, the systematic dance curriculum suitable for musical site would be needed. Second, the dance technique lesson suitable for diversified musical expression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eaching methods for the characterized musical dance would be necessary. Above all, we need effective education method concerned with performance venues. Musical students are facing difficulties in performing acting, singing, and dancing at the same time. In reality, it is even tough to learn a single area among them. For the original Korean-style musical that could be imitated by no one, the systematic curriculum of college is very important.

■ keyword : | Musical | Dance Education | Musical Education |

I. 서론

현대적 스타일의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우리나라는 뮤지컬 전문교육기관인 2000년 백제예술대학을 시작으로 많은 대학교에서 관련학과 개설을 하고 있으며 현재매년 15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뮤지컬은 연기, 노래, 무용이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수많은 연기학과 졸업생, 성악관련 졸업생, 무용학과의 졸업생들과 오디션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뮤지컬시장은 넓어졌지만 뮤지컬학과를 졸업한 이들은 현장과 연결되어 공연에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공연의 편수는 한정되어있으나 공연을 하고자하는 인원은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다. 현재 뮤지컬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뮤지컬작품에 사용되는 무용움직임에 대한 교육, 즉 실기교육 중에서도 무용테크닉은 수행되어지고 있으나 다양성을 가진 교육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뮤지컬 속에 등장하는 무용의 습득에 있어 타당한 움직임의 기초부터 고급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뮤지컬에서 무용도 잘 하는 배우, 신체적 표현력이 풍부한 배우로 성장 할 수 있다. 라이선스 작품에 등장하는 안무만을 익힌다고 무용을 잘 하는 배우가 될 수 없듯이 뮤지컬에서는 여러 장르의 무용을 수행해야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외국작품에 나오는 동작을 답습하는 정도로 무용의 쓰임새가 빈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뮤지컬학과의 전공교수의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학과교수의 전공도 교육과정 편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전공교수의 전공에 따라 연극을 바탕으로 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기의 비중이 높고, 성악을 전공한 교수의 경우는 성악의 비중이 높다[2].

무용에서도 적용되는 사례이며 특히 뮤지컬과 전임 교수의 비율에서도 연기와 성악에 비해 무용담당 교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연기와 노래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연기, 성악, 무용 장르가 균등하게 교육되어야하는 뮤지컬에서의 주요문제의 하나로 부각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무용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수 자신의 전공을 위주로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뮤지컬에서의 무용 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교육과정에서의 뮤지컬 무용은 대부분의 대학 뮤지컬과 커리큘럼에서 "체계적인 무용테크닉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신체표현 기술을 연마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용테크닉 수업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3]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이는 현장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배우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다. 대학의 보완된 교육과정을 통해 공연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다.

뮤지컬 무용은 오락성을 띤 무용예술분야만이 아닌 사회성, 민족성, 문화예술성 등 모든 것이 내포되어 극과 음악의 조화 속에 무언의 언어로 인간을 표현한 추상적 종합예술이어야 한다[4]는 지적처럼 수입 외국작품들은 그야말로 검증 받은 작품들이지만 일부에서는 오락성을 띤 무용예술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전체적으로 창작연출과 탄탄한 구성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대학의 뮤지컬 관련 교육과정에서는 창작보다는 모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한국창작뮤지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라이선스 뮤지컬의 과다유입으로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지는 현상이 차츰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뮤지컬을 답습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은 큰 문제다.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작품의 외국수출처럼 한국창작뮤지컬이 유럽과 미국을 향해 보다 활발한 교류로 발전하려면 교육과정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하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들은 라이선스의 작품을 모방하기 보다는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Off-Off 브로드웨이부터 브로드웨이라는 거대한 뮤지컬 시장에서 하루에 200편정도의 작품이 공연되고 프랑스는 다른 장르의 창작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우리는 창작이라는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놓치고 외국뮤지컬에 계속 길들여지는 상태로 전략 할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뮤지컬학과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차이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뮤지컬학과 무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 관련 도서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대학 뮤지컬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의 뮤지컬관련학과 교과과정 조사, 미국의 뮤지컬관련 학교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위 TOP 10에 들어있는 4개교와 무용교육과정이 비교적 우수한 1개교, 프랑스학교 중 무용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연극예술학교 5개 등을 선정했다.

창작뮤지컬은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총체적 예술로 안착되려면 외국작품 모방과 의존을 벗어나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국내의 뮤지컬 교육과정의 사례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더 나은 뮤지컬학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유도할 수 있어야 뮤지컬 교육을 위한 연기, 노래, 무용이 각자의 전문성을 종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해외 뮤지컬교육현황

1. 미국의 뮤지컬 무용교육현황

미국의 브로드웨이는 뮤지컬의 본고장이라고 할 만큼 40여개의 극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오프브로드웨이(Off-Broadway)극장은 이의 10배가 넘는다. 이들 공연장에서 상시 공연작품 수는 대략 200편이 넘을 정도이다[5]. 이외에 오프오프브로드웨이(Off-Off Broadway)까지 존재해 있어 제작 작품 수는 그 이상으로 명실상부한 뮤지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3]. 미국에서는 현재 200여개의 대학에서 이러한 공연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뮤지컬학과와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을 위하여 Musical Theatre과정의 대학인 신시내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 / College-Conservatory of Music / Musical Theatre), 오클라호마 대학(The University of Oklahoma / Weitzenhoffer Family College of Fine Arts / Musical Theatre Performance / Bachelor of Fine Arts in Musical Theatre), 시라쿠스 대학(College of Visual and Performing Arts at Syracuse University / Musical Theater, BFA), 아타카 대학(Ithaca College / Department of Theatre Arts / Musical Theatre (B.F.A.)), 미주리 대학(Missouri State University)의 Musical Theatre전공과 Theatre and Dance 전공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대학 뮤지컬계열학과의 무용교육현황은 [표 1]과 같다. 다음의 내용은 미국에 있는 뮤지컬을 전공으로 하는 TOP 10위 안에 드는 4개의 학교와 무용수업이 비교적 고루 갖추어진 대학을 선정하여 무용교육과정 수업을 조사하였으며 현대무용, 발레, 재즈댄스, 탭댄스, Musical Styles, 안무와 구성으로 구분하였고, 그 이외의 과목은 기타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필수적으로 무용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그중 다수의 학교에서 대중무용인 재즈와 탭, 순수무용인 현대무용과 발레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학 뮤지컬계열학과에서는 재즈댄스, 발레, 탭댄스의 수업이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에서 나타나듯 총 104 과목 중 재즈댄스 수업이 26과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발레가 21과목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탭댄스가 20과목, 현대무용수업이 15과목, 기타 10과목, 뮤지컬 스타일 8과목, 안무와 구성 4과목으로 무용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미국의 뮤지컬 관련학과에서 전체적으로 무용교육과정은 평균적으로 17과목의 무용관련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Syracuse University, Ithaca College에서 20과목의 무용수업이 진행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The University of Oklahoma가 19과목,

표 1. 미국 뮤지컬관련학과 무용교육과정(과목수)

	현대 무용	발레	재즈 댄스	탭 댄스	Musical Styles	안무 & 구성	기타교과목
Musical Theatre	2	2	1	3	Musical Theatre Styles		
M S U Theatre and Dance	3	3	3		Performance	Choreography and Production, Dance Composition 2	Dance History Seminar, Senior BFA Review, Partnering, Applied Kinesiology for the Dancer, Dance Pedagogy
University of Cincinnati	2	4	8	4			
The University of Oklahoma	3	4	5	5	Theatre Dance Styles 2		
College of Visual and Performing Arts at Syracuse University	1	4	5	4	Theater Dance Styles 2, Theater Dance Repertory		Movement for Actors 2, Dance in New York City
Ithaca College	4	4	4	4	Dance for the Musical Stage	Dance Composition	Survey of Dance History, Ballet IV with Pointe

University of Cincinnati와 Missouri State University의 Theatre and Dance 전공이 18과목을 교육하였고, Missouri State University의 Musical Theatre 전공이 9과목이지만 같은 학교의 Theatre and Dance 전공을 합하면 Missouri State University에서는 27과목을 교육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Missouri State University에서는 Musical Theatre와 Theatre and Dance로 전공을 분류했으나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무용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여 단순한 실기만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이론교육을 중시하는 사례도 많이 보여준다.

2. 프랑스의 무용교육 현황

프랑스 뮤지컬은 미국의 뮤지컬과는 다르게 송 스루 (Song-Through) 스타일의 작품이 특색이며 무대의 색감과 이미지를 만드는 탁월한 연출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배우와 무용수들 간의 역할이 분명하여 극을 전달하는 방식이 영국과 미국의 뮤지컬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용수가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코러스 역할과 배우들과의 호흡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을 발레나 현대무용, 재즈 등으로 무대에 펼쳐 놓으면서 무대장치나 대사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6]. 그리하여 배우들 보다는 무용

수가 더 많은 까닭에 스펙터클한 무대와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대형뮤지컬이 주를 이룬다. 또한 전문 무용수가 대거 등장하여 뮤지컬이 아닌 무용공연으로 이름을 바꾸어도 될 만큼 프랑스 뮤지컬에서 무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뮤지컬 교육과정을 알아보고자 쿠흐 플로랑(Cours Florent/Le stage de Comédie Musicale), 르 생트르 데자트 드 라 쉐 (CENTRE DES ARTS DE LA SCÈNE / ARTS DE LA SCENE), 소르본 대학의 폴 쉬페리외 덩셰느명 아티스틱 파리 / 불론느 빌랑꾸(SORBONNE UNIVERSITÉS / PÔLE SUPÉRIEUR D'ENSEIGNEMENT ARTISTIQUE Paris / Boulogne-Billancourt), 파리 국립 고등 연극 예술원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Art Dramatique (CNSAD)), 니스 소피아 앙티폴리스(Université Nice Sophia Antipolis / UFR Lettres Arts et Sciences Humaines - Département des Arts)를 조사 하였다.

이들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4년제와 2년제의 중간인 3년제로 교육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무용교육현황은 [표 2]와 같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현대무용, 발레, 대중무용(힙합, 탭, 재즈), 무용과 즉흥, 안무로 구분하였고, 그 이외의 과목은 기타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

표 2. 프랑스 뮤지컬관련학과 무용교육과정(과목수)

	현대 무용	발레	대중무용	무용&즉흥	안무	기타교과목
Cours Florent		2	hip hop 3, claquettes 2, jazz 3		1	
CENTRE DES ARTS DE LA SCÈNE	2	2	Modern' Jazz 3	Improvisation 2, Module Improvisation		Module Danse et Techniques Corporelles
SORBONNE UNIVERSITÉ SUPÉRIEUR D'ENSEIGNEMENT ARTISTIQUE Paris						connaissance anatomique et physiologique du corps 3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Art Dramatique (CNSAD)				Danse 4		
Université Nice Sophia Antipolis	2			DANSES DU MONDE 2	ATELIER DE CREATION EN DANSE 5	

의 학교들이 무용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중 CENTRE DES ARTS DE LA SCÈNE 학교에서 모든 장르의 무용을 고루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대중무용과 무용&즉흥, 안무수업이 진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나타나듯 수업은 총 38과목으로 이 중 대중무용이 11과목으로 가장 많은 교육을 진행 하고 있었고, 무용& 즉흥 수업이 9과목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안무와 기타수업이 각각 6과목, 4과목, 현대무용과 발레가 4과목으로 가장 적은 과목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프랑스의 대학 뮤지컬계열학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용교육과정이 평균적으로 7.6과목의 무용관련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CENTRE DES ARTS DE LA SCÈNE 학교에서 11과목의 무용수업으로 가장 많은 교육을 보였으며 현대무용, 발레, 모던재즈댄스와 즉흥 등 다른 학교에 비해 고루 갖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ours Florent학교가 10과목, Université Nice Sophia Antipolis학교가 9과목,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Art Dramatique (CNSAD), SORBONNE UNIVERSITÉS학교가 4과목을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실기나 창작적인 면, 이론 등 학교마다의 특색과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III. 국내 대학 뮤지컬과 무용교육현황

1. 2~3년제 대학 뮤지컬과 무용교육현황

2~3년제 대학 뮤지컬학과의 무용교육현황은 [표 3]과 같다. 다음의 내용은 전국에 있는 2~3년제 대학 뮤지컬을 전공으로 14개교의 무용교육과정수업을 조사하였으며 무용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순수무용인 현대무용, 발레, 전통무용과 대중무용(재즈, 탭), 뮤지컬댄스(씨어터, 토탈, 실용, 퍼포먼스, 레파토리)로 구분하였고, 그 이외의 과목은 기타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무용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그중 다수의 학교에서 대중무용과 뮤지컬 댄스, 발레 수업 등으로 분리해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제의 대학에서는 뮤지컬 댄스, 대중무용과 발레의 수업이 다른 교과목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표 3]에서 나타나듯 총 102과목 중 뮤지컬 댄스계열 수업이 31과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순수무용인 발레수업이 22과목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보였고, 재즈나 탭댄스 수업이 주를 이루는 대중무용을 18과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다. 또

표 3. 2~3년제 대학별 뮤지컬학과 무용교육과정

현대 무용	발레	전통 무용	대중무용 (재즈, 탭, 힙합)	뮤지컬 댄스	안무	기타교과목
청강문화산업대학교	3		재즈댄스 5	3		
군장대학교				2		무대움직임2 신체표현2
동아방송대학교	2		재즈댄스 2	2		
명지전문대학교				2, 씨어터댄스 2	창조적 움직임 2	몸의 표현과 이해 2 움직임 2
여주대학교						움직임과 표현 2 신체교급기술과 표현 2
백제예술대학교	뮤지컬 발레	탈춤	탭댄스, 뮤지컬재즈댄스	1, 실용댄스	한국뮤지컬 무용창작	
국제예술대학교	3		재즈댄스 2	2, 퍼포먼스댄스		무대움직임
경민대학교	1			2, 토탈댄스		
경북대학교	1		재즈댄스	토탈댄스		
대경대학교	3	한국 무용		4, 퍼포먼스댄스		아크로바틱2 몸다스리기2 댄스스포츠 움직임
백석예술대학교	2		재즈댄스 2	씨어터댄스 2	신체표현과 창작 2	
한양여자대학교	4		재즈댄스 2 탭댄스 2	뮤지컬 레파토리 댄스 4		
계명문화대학교						무대공연실기 2, 다이어트댄스
서울예술대학교	2	1				몸의 표현

한 기타과목이 23과목으로 그중 16과목은 현대무용의 기초와 유사한 수업의 개설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 이외에 안무와 전통은 각각 5과목, 3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었지만 현대무용 수업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학교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이들 2~3년제 뮤지컬 관련학과에서 무용교육과정은 평균적으로 7.2과목의 무용관련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대경대학교에서 15과목의 무용수업으로 가장 많은 교육을 보였으며 한양여자대학교가 13과목,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11과목, 명지전문대학교가 20과목을 교육하였고, 여주대학교와 경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가 4과목, 계명문화대학교, 경북대학교가 3과목으로 무용보다는 다른 실기교과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 4년제 대학 무용교육현황

4년제 대학 뮤지컬학과와 무용교육현황은 [표 4]와

같다. 다음의 내용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뮤지컬을 전공으로 12개교의 무용교육과정수업을 조사하였으며 무용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순수무용인 현대 무용, 발레, 전통무용과 대중무용(재즈, 탭, 힙합), 뮤지컬댄스(씨어터, 토탈, 쇼, 레파토리)로 구분하였고, 그 이외의 과목은 기타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무용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그중 다수의 학교에서 대중무용과 발레, 뮤지컬 댄스 수업으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뮤지컬관련학과 무용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4년제의 대학에서는 대중무용이나 발레, 뮤지컬 댄스 수업이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서 나타나 듯 총 103과목 중 뮤지컬댄스계열 수업이 25과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재즈나 탭댄스 수업이 주

표 4. 4년제 대학별 뮤지컬학과 무용교육과정(교과목 수)

	현대 무용	발레	무용	전통무용	대중무용 (재즈, 탭, 힙합)	뮤지컬 댄스	안무	기타교과목
명지대학교		2		한국 무용	기초댄스 재즈댄스 3 탭댄스 2	2		
서경대학교		4			재즈댄스 2 탭댄스 2	4		아크로바틱 2
청운대학교	2		2	사물놀이	탭댄스 리듬앤댄스		안무 2 뮤지컬안무 2	
호원대학교		2				씨어터댄스 4		
동서대학교		6	2			6		
영산대학교					재즈·탭댄스	1		신체와 동작 2
세한대학교								아크로바틱 8
용인대학교						쇼댄스 2		피지컬트레이닝 2
중부대학교			4		힙합댄스	1	무용창작법	
백석대학교	2	2			탭댄스 2	4	오디션 무용작품	뮤지컬무용의 이해
단국대학교		2			재즈댄스 2 탭댄스			배우의 몸과 움직임 2 아크로바틱, 오디션-춤
동의대학교						1	뮤지컬안무 2	

를 이루는 대중무용과 기타과목이 각각 19과목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

순수무용인 발레 18과목, 현대무용은 4과목을 교육 받고 있었다. 또한 장르를 가리지 않은 무용수업과 안무수업이 각각 8과목, 전통을 2과목으로 무용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4년제 뮤지컬 관련 학과에서 전체적으로 무용교육과정은 평균적으로 8.5과목의 무용관련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서경대학교와 동서대학교에서 14과목의 무용수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백석대학교가 12과목, 청운대학교와 명지대학교가 11과목을 교육 하였고, 용인대학교와 영산대학교가 4과목, 동의대학교가 3과목으로 무용보다는 다른 실기교과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국내·외 무용교육의 비교분석

II장에서 나타난 교육과정을 통하여 미국 뮤지컬과 프랑스 뮤지컬의 스타일은 무용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외국의 교육에서 나타난 교육과정이 그 나라의 뮤지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교육과정과 연계 되어 각 나라의 작품 방향이나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

었다. 미국은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독창적인 창작 작품의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의 작품을 재현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또한 교육과정도 외국의 라이선스뮤지컬을 위한 교육과정이 우선이다.

미국은 조사대상인 5개 학교 모두에서 순수무용인 현대무용과 발레 그리고 재즈댄스와 탭을 기본적인 테크닉에서부터 전문가 수준의 고급테크닉까지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4 교과목 중 82교과목으로 전체의 80%정도를 테크닉 수업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sical Styles 혹은 Theater Dance Styles 수업은 현재에 공연되고 있거나 과거의 뮤지컬 속 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안무나 구성에 있어서도 아타카 대학(Ithaca College), 미주리 대학(Missouri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미주리 대학은 Musical Theatre와 Theatre and Dance로 전공으로 분류하여 무용테크닉뿐 아니라 안무와 구성, 역사, 운동학, 교육학 등 이론교육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뮤지컬의 메카답게 화려한 볼거리와 전문 댄서의 실력을 겸비한 무용교육을 추구하고 있어 연기, 노래와 어개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브로드웨이의 공연이 왜 발전 할 수 있는가를 짐작

하게 만들어 준다.

프랑스의 교육은 미국과는 다른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뮤지컬이 발전되어 온 스타일에는 교육이 밀바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조사된 학교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재즈와 탭의 수업이 주를 이루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르본느 대학에서는 본격적인 무용실기의 수업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지식과 해부학을 이해하는 수업으로 3년 동안 연기와 노래 서커스 등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서 교육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었고 Université Nice Sophia Antipolis는 현대무용과 무용, 그리고 창작 수업에 많은 할애를 하여 현대무용의 세밀한 표현력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이용하여 창작수업과 접목한 창의적인 수업으로 연계하여 뮤지컬 안에서의 무용이 독자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Cours Florent와 CENTRE DES ARTS DE LA SCÈNE의 경우에는 미국과 비슷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CENTRE DES ARTS DE LA SCÈNE는 무용에서 필요한 요소를 고루 갖추어 무용테크닉과 즉흥을 통하여 뮤지컬에서 요구하는 현시대에 필요한 안무(현대무용이나 현대무용과 재즈를 혼합한 모던 재즈와 움직임의 즉흥적인 요소)를 바로바로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뮤지컬 댄스 수업에 가장 많은 시간할애를 하고 있었지만 이 수업은 외국의 라이선스 공연 속 무용을 따라하는 수준이고 한국뮤지컬의 창작보다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작품에 투입하여 공연하기 위함으로 쓰이는 정도이다. 탭이나 재즈의 경우에도 뮤지컬 댄스 수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을 위해서 교육되어지기 보다는 라이선스 작품을 위한 무용을 모방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 정서가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알맞은 무용교육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몸의 자세를 바로 잡거나 근력을 위한 발레의 경우 기본을 위한 트레이닝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아 작품으로 창작하기에 많은 어려

움이 있고 19과목을 교육하는 기타 교과목에는 무용이라기보다는 신체훈련에 가까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8개 과목의 창의적인 안무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무의 경우 무용의 테크니적인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을 이루어야만 신체를 이용하여 많은 실험과 움직임의 개발, 다양한 구성을 바탕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수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4년제 뮤지컬의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움직임과 테크닉을 연마할 수 있는 수업인 현대무용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학교가 청운대학, 백석대학 2개교로 조사되었다. 중부대학교에서는 무용수업과 무용창작법이라는 수업이 연계되어있고 청운대학교에서는 현대무용, 무용, 탭 댄스수업이 안무수업과 뮤지컬 안무 수업이 연계되어 있었고, 백석대학교에서는 발레, 현대무용수업이 오디션 무용작품과 연계되어 개설되어 있었다.

2·3년제의 대학에서도 뮤지컬관련 수업과 대중무용의 수업으로 전체의 50%를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수업은 4년제 대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4년제 대학보다도 더 라이선스 공연에 맞추어진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무의 경우에도 발레수업과 연계되어 진행이 되고 있거나 명지전문대학교는 순수무용이나 대중무용을 교육하지 않는 상태에서 창작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타교과목에서도 신체를 단련하거나 훈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200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학 뮤지컬교육은 매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공연현장과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처럼 본 연구에서도 지금까지의 조사와 비교분석으로 내린 결론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뮤지컬은 창작보다는 외국의 라이선스 공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 나라의 교육을 보면 나라의 문화가 보이듯이 뮤지

컬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뮤지컬에서의 무용은 극을 잘 연결해주고 의미를 확장시키는 역할로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연 현장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실정이다.

뮤지컬은 연기, 노래, 무용이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들 장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라이선스를 위한 수업보다는 창작을 위한 단계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작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고강도 테크닉과 트레이닝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나 국외대학과 달리 우리나라는 뮤지컬 레파토리를 답습하는 교과목과 재즈댄스, 탭댄스 등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른 스타일의 춤과 또는 몸의 자세와 교정 기본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적 발레무용교과들로 교과목이 채워져 있었다.

이는 뮤지컬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창작 작품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한국의 창작뮤지컬의 발전보다는 제공연되는 라이선스 작품의 소화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판단된다. 물론 라이선스 작품을 소화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창작뮤지컬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한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뮤지컬의 미래를 담보 할 수 있는 무용교육과정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와 창작 그리고 그들의 정서에 맞는 무용(재즈댄스, 탭댄스)과 표현성을 길러주는데 탁월한 현대무용, 몸의 기본을 바르게 하는 발레 테크닉의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교육한다. 이것은 브로드웨이의 작품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전문성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학교마다의 특성을 살려 이론과 창작, 실기를 교육하여 협업을 통한 연출과 안무 등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질적 수준이 높은 작품을 생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외국학교의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후 더 많은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가 요구되어지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뮤지컬교육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 대학 뮤지컬학과의 교육과정은 창작

보다는 외국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외의 뮤지컬학과 무용관련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으로 우리나라의 창작뮤지컬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무용교육과정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뮤지컬교육실정에 맞는 무용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발레, 재즈, 탭 등 외국의 무용은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뮤지컬 레파토리를 포함한 수업시간을 줄이고 현대무용과 한국창작무용 등을 추가로 개설하여 독자적인 무용을 창작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물론 현대무용 또한 미국에서 파생된 무용이지만 움직임의 범위가 넓고 우리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어 한국무용 창작과도 연계하여 드라마와 녹아드는 독창적인 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뮤지컬에 있어서의 무용테크닉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 뮤지컬댄스, 씨어터댄스, 토탈댄스, 쇼댄스 수업으로 라이선스 작품을 답습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현대무용과 한국창작무용, 모던재즈(재즈댄스 보다 한 단계 발전된) 등의 수업을 단계별로 증가시켜 전문적으로 교육해야한다. 한국창작뮤지컬에서의 무용 뿐 아니라 순수무용에까지도 진출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하며 또한 무용과에서도 뮤지컬의 전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뮤지컬 무용교육에 있어서 무용교수법이 특성화 되어야 한다. 각 대학 뮤지컬학과의 교육과정상 무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할 수 없다면 프랑스의 교육과정처럼 특성을 강조한 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하고 새로움을 요구하는 창작이나 전문적인 댄서 혹은 배우,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진행 한다면 한국창작뮤지컬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뮤지컬 무용교육을 위한 단계별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안무나 창작수업은 움직임을 익힘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실기수업은 없는데 창작수업만 있다면 움직이는 범위와 표현하는 범위에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실기수업을 동반한 창작이나 안무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 있다.

뮤지컬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연기, 노래, 무용을 병행

해야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한가지만을 공부해도 어려운 예술분야에서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이 확실하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뮤지컬작업, 공연 등에 진입하려면 뮤지컬과를 비롯하여 수많은 연기, 성악, 무용학과의 졸업생들과 힘든 경쟁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기나 장점이 있어야 한다. 또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스타일의 우리의 창작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도 대학의 뮤지컬관련 무용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창작공연이든 재공연이든 공연의 편수는 한정 되어 있으나 공연을 하고자하는 인원은 갈수록 많아지는 현실에서 무용교육과정의 개편 및 현장과 연계된 효율적인 교육방안은 자라고 있는 뮤지컬 인재들이 뛰어난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임란정, 손각중, “뮤지컬 무용교육현황 및 작품분석을 통한 안무교육의 필요성,” 대한무용학회, 제 27권, 제1호, p.168, 2014.
- [2] 조상원, *뮤지컬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한국대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9, 2013.
- [3] 진유정, *한국창작 뮤지컬 안무의 역사적 고찰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5, 2015.
- [4] 임란정, 손각중, “뮤지컬 작품 특성에 따른 무용 안무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48집, 제3호, p.147, 2014.
- [5] 이보연, *뮤지컬 포에버*, 루비박스출판사, p.74, 2012.
- [6] 김종로, 김익진, *프랑스 뮤지컬의 이해*, 강원대학교출판사, pp.91-92, 2007.

저 자 소 개

배혜령(Hye-Ryung Bae)

종신회원



- 1985년 2월 : 신라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사)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무용학석사)
- 1999년 2월 : 성균대학교공연예술협동과정(박사수료)

▪ 2000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뮤지컬학과교수
 <관심분야> : 무용, 문화예술, 뮤지컬, 공연예술, 문화콘텐츠

신중철(Jong-Chul Shin)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생활무용예술학과(무용학사)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석사)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뮤지컬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무용, 문화예술, 뮤지컬, 공연예술, 문화콘텐츠